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56



▶ 57회 예고
빈두사라왕을 알현한 아쇼까는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강가강에 나가 빈두사라왕의 건강과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 그러나 순행 중이던 수상 칼라따까가 급히 돌아와 아들 꾸날라가 탁실라에 볼모로 가 있음을 알리자, 아쇼까는 분노한다.

아쇼까, 빈두사라왕 알현하다

빠딸리뿌뜨라에 도착한 아쇼까는 바로 왕궁으로 갔다. 빈두사라왕을 알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아쇼까는 빈두사라왕을 만나지 못했다. 빈두사라왕의 병이 위중해 우두머리 궁중의원과 친위대 군사가 면담을 막았기 때문이었다. 칼라따까와 라다굽따는 옛 꾸루국과 앙가국을 순행 중이었다.

빈두사라왕의 안위(安危)는 1급 비밀이었다. 대왕의 안위를 발설하면 비밀누설죄로 극형에 처해졌다. 왕권을 수호하고 적국에 불리한 첩보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아쇼까는 접견실에서 한나절을 기다렸다. 친위대장이 다가왔지만 그는 빈두사라왕의 근황을 들려줄 뿐 건강 문제는 일체 말하지 않았다.

"차라리 내일 알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대왕님께 지금 인사를 드리고 싶소. 다르마 왕비님을 먼저 뵐 수야 없지 않겠소?"

"대왕님께서는 오랜 정복전쟁으로 심신이 지쳐 쉬고 계신 줄도 모르겠습니다."

친위대장은 끝내 빈두사라왕이 위중한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빈두사라왕에게 수시마를 지키라고 명을 받은 심복이었다. 아쇼까는 친위대장과 몇 마디를 주고받으면서 결코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감지했다.

밖이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다. 이윽고 우두머리 궁중의원이 아쇼까에게 다가와 말했다.

"부왕님, 대왕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대왕님은 어디에 계시오?"

"대왕님께서는 침전에 계십니다. 어제 오후에 갑자기 악화되어 침전으로 모셨습니다."

"말씀은 하시오?"

"응급치료를 받으시어 지금은 가능하십니다."

아쇼까는 우두머리 궁중의원을 따라서 왕의 침전으로 갔다. 침전은 정궁 뒤쪽 후원 속에 자리했다. 친위대장이 침전 앞에 보초를 선 친위대 경계군사들에게 무슨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아쇼까는 빈두사라왕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말했다.

"대왕님이시여, 아쇼까가 왔습니다."

"아쇼까…"

빈두사라왕이 침대에 누운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빈두사라왕의 두 눈동자에 기름불 불빛이 비쳤는데 그의 눈동자는 힘을 잃고 반쯤 풀어져 있었다. 빈두사라왕은 아쇼까를 알아본 듯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대왕님, 궁중의원이 곁에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쇼까야, 나는 나를 안다."

옆에 있던 우두머리 궁중의원이 당황했다. 빈두사라왕의 "나는 나를 안다."라는 말이 "나는 곧 죽을 것이다"로 들렸기 때문이었다. 아쇼까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아쇼까를 만나서 정신이 돌아왔는지 빈두사라왕의 목소리는 웅얼거리지 않고 입 밖으로 나왔다.

"너는 수시마 형을 도와야 한다."

"예, 대왕님."

"수시마를 부르거라."

우두머리 궁중의원이 말했다.

"대왕님, 수시마 부왕님은 지금 탁실라에 계십니다."

"그래? 내가 잠깐 정신을 잃었구나."

빈두사라왕은 수시마가 아직도 빠딸리뿌뜨라에 있는 줄 알고 있는 듯했다. 특별휴가를 받아 작년 초에 왔던 수시마는 현재 탁실라로 돌아가서 그곳을 통치하고 있었다. 빈두사라왕이 친위대장을 찾았다.

"대장은 어디 있느냐?"

"침전 밖에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부르거라."

우두머리 궁중의원이 나간 사이에 아쇼까가 말했다.

"아버님, 자리에서 꼭 일어나셔야 합니다."

"나는 전쟁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이제는 내 차례가 된 것 같다."

"아버님."

아쇼까는 빈두사라왕의 말에 할 말을 잃고 말았다. 고개를 쳐들어 천정을 보고 있는 동안 갑자기 기름불이 흐리게 보였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친위대장이 침실로 들어왔다.

"대왕님이시여, 친위대장입니다."

"수시마를 부르거라."

"예, 명을 받들겠습니다."

빈두사라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뒤 무언가 말을 할 듯 입술을 움직이려다가 말았다. 깊은 숨을 내쉬는 것으로 보아 비로소 안도하는 듯했다. 빈두사라왕이 눈꺼풀을 파르르 떨며 눈을 가만히 감자, 우두머리 궁중의원이 아쇼까와 친위대장에게 눈짓을 했다. 침실을 나가달라는 뜻이었다.

아쇼까와 친위대장이 침실을 나서는 사이에 궁중의원이 빈두사라왕의 머리맡에 있는 기름불을 켰다. 왕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침전 밖에서 친위대장이 말했다.

"부왕님, 지금 즉시 탁실라로 친위대 조장을 보내겠습니다."

"대장은 상황이 위중하니 여기 계셔야겠지요."

"그렇습니다. 부왕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오?"

"방금 대왕님의 명을 들은 사람은 부왕님과 저, 궁중의원뿐입니다. 그 밖의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됩니다. 왕궁이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알았소."

아쇼까는 기분이 묘했다. 친위대장이 당연한 말을 했는데도 그에 대한 의심이 솟구쳤다. 왕궁의 평화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수시마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헷갈렸다. 그러나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쇼까는 받아들였다. 왕의 안위가 심각하다는 소문이 퍼지면 왕궁은 순식간에 혼란의 늪으로 빠질 수도 있었다.

아쇼까는 다르마 왕비별궁으로 가면서 장탄식을 했다.



"아, 인드라신이시여. 무심하십니다. 특별휴가를 받아 온 날 무슨 날벼락입니까? 마우리아왕국은 이제 어찌하여야 합니까?"

별이 뜬 밤하늘도, 내성 너머 시바신이 산다는 강가강도 무심했다. 강가강에서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지 불빛 몇 개가 명멸했다. 아쇼까는 강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가서 혼란스러운 머리를 식혔다. 어머니 다르마와 아내 아상디밋따를 십여 년 만에 만나는데 심란한 마음으로 만나고 싶지 않았다. 아들 꾸날라도 기쁜 마음으로 안아보고 싶고, 동생 비가따쇼까도 반가운 마음으로 만나고 싶었다.

그때, 누군가가 아쇼까에게 등불을 들고 다가왔다. 아쇼까는 목소리만 듣고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낯익고 정겨운 목소리였다. 시녀 락슈미띳사였다.

"부왕님, 락슈미띳사입니다."

"내가 여기 온 줄 어떻게 알았는가?"

"며칠 전부터 별궁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부왕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대왕님을 먼저 뵀지."

"왕비님께서 밤길이 어두우니 마중을 나가보라고 하셨어요."

아쇼까는 락슈미띳사의 한 마디에 주술에 걸린 듯 좀 전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잠시 잊어버렸다. 십여 년 만에 가족을 만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다.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어머니 다르마 왕비님은 늙지는 않으셨을까, 주름살이 생기고 흰 머리가 나지 않으셨을까. 두 번째 아내 아상디밋따는 여전히 마음이 곱고 말투가 자애로울까. 아, 아들 꾸날라는 열두 살, 동생 비가따쇼까는 열 살이 되었겠군.

"모두 잘 있겠지?"

"왕비님은 부왕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약을 끊으셨어요. 건강이 단박에 좋아지신 거죠."

"기쁜 소식이군."

"아상디밋따 부왕비님도 가끔 콧노래를 부르세요."

"락슈미띳사가 우리 가족의 기분을 속속들이 알고 있군."

"꾸날라는?"

"잘, 계시죠. 꾸날라 왕세자님은 어디든 여행할 수 있는 건장한 청년 같죠."

락슈미띳사는 꾸날라가 탁실라에 가 있다는 소식은 전하지 않았다. 아쇼까가 실망할까 봐서 두루뭉수리하게 대답했다.

아쇼까는 왕비별궁에 다다라서야 동생 비가따쇼까를 들먹였다.

"비가따쇼까는 승마를 배울 나이겠군."

"대왕님께서 왕자님을 아주 사랑하신답니다."

별궁 접견실 문 밖에는 다르마 왕비와 아상디밋따 부왕비, 비가따쇼까 동생이 서 있었다. 모두가 환한 얼굴로 아쇼까를 맞았다. 아쇼까는 다르마 왕비에게 먼저 다가가 안았다. 그리고 아상디밋따, 비가따쇼까의 볼에 입맞춤했다. 접견실은 여기저기에 기름불을 켜놓아 왕의 침실과 달리 대낮처럼 밝았다. 대형화분에는 붉고 하얀 부겐빌리아 꽃들이 만발했고, 화병에는 막 피어난 연꽃이 진한 향기를 퍼뜨리고 있었다. 다르마 왕비가 말했다.

"아쇼까여, 우리는 네가 오기를 바라며 날마다 기도했단다."

"어머니, 저는 여기에 1년쯤 있을 겁니다."

아상디밋따가 말했다.

"시바신께서 기도를 들어 주셨어요. 어머님께서 날마다 강가강으로 나가시어 기도했어요."

"아니다. 네 동생 비가따쇼까가 대왕님께 부탁한 것이지."

비가따쇼까가 화병의 연꽃처럼 활짝 웃었다. 고른 치아가 하얗게 빛났다. 열 살이면 승마와 검술을 배우기 시작하는 나이였다. 아쇼까는 비가따쇼까를 보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수시마 형과 코끼리경주대회에 나가서 1등을 양보했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다. 그때 비가따쇼까가 칼 한 자루를 아쇼까에게 내밀었다.

"형님, 대왕님께서 저에게 주신 칼입니다. 그런데 이 칼을 형님께 선물하겠습니다. 형님께서 오시는데 무슨 선물을 할지 이 칼을 보면서 몇날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오, 비가따쇼까야. 그건 안 된다."

"대왕님께서 저에게 주신 칼이니 제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수시마에게도 한 자루 주었던 바로 그 칼이었다. 길이가 짧은 칼에는 '정의를 실현하는 칼'이라는 명문이 마케도니아어로 음각되어 있었다. 다르마 왕비가 말했다.

"동생이 얼마나 너를 기다렸으면 이 칼을 선물하겠니? 흔쾌하게 받아라."

칼을 보면서 선물할지 말아야할지 몇날 며칠 동안 고민했다고 하니 비가따쇼까의 설레는 마음을 알 것도 같았다. 아쇼까는 비가따쇼까가 내민 칼을 받았다. 아쇼까는 가족들에게 자정 무렵까지 웃자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모처럼 왕비별궁 접견실에서 웃음소리가 밤공기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 그러던 중에 아쇼까는 문득 꾸날라가 생각이 나서 물었다.

"꾸날라는 어딨소?"

아상디밋따가 대답을 못하자 다르마 왕비가 말했다.

"대왕님께서 수시마 형을 도우라고 탁실라로 보냈단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아쇼까는 열두 살의 꾸날라가 수시마를 위해 무엇을 돕는다는 것인지 의아해했다. 자신이 빠딸리뿌뜨라에 와 있는 동안 아들 꾸날라가 왜 탁실라로 가 있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아무도 그 이유를 아쇼까에게 말하지 못했다.

아쇼까는 잠자리로 돌아와 밤새 뒤척거렸다. 꼭두새벽에 흐느끼고 있는 아상디밋따를 껴안았다. 그러나 아쇼까는 꾸날라 생각 때문에 벌떡 일어나고 말았다. 탁실라에 가 있는 꾸날라가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었다.〈계속〉

